

광주·전남 지자체 중부세 개편 직격탄

27곳 교부세 평균 60억씩 줄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라 내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1조4천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광주·전남의 경우 무려 1천650억원이 줄게 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난을 가중할 뿐 아니라 현안사업 차질도 우려된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서 중부세 개편안을 반영해 내년도 부동산교부세를 1조7천882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올해 부동산교부세 3조1천770억원보다 43.7%인 1조3천888억원 적은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세수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별 재정능력과 사회복지 수요,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에 배분해왔다.

전남 1,320억원·광주 300억원 감소

재정난 더욱 심화...현안사업 등 차질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고 증장기적으로 재산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부세 개편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중부세 개편으로 부동산교부세가 2010년까지 약 2조2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목적세 정비 등을 통해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이번 개편안의 직격탄을 맞게됐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세 감소분과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키로 했지만, 별도 지원하던 균형재원

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5개 자치구의 경우 평균 60억원씩 모두 3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광주 60억원의 감소를 고려할 경우 전남은 22개 시군을 통틀어 모두 1천320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줄게됐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재산세에 크게 의존해온 광주시와 전남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영향을 덜 받는다.

문제는 광주시 5개 자치구의 경우 자체 세수 공무원들의 임금과 저 주지못하는 상황에서 무려 60억원이 삭감돼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됐다.

특히 전남 22개 시·군·구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를 뺀 만큼의 지방세가 걸리지 않는 나주, 곡성, 구례, 고흥, 보성, 강진, 해남, 함평, 완도, 신안군 등 10곳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별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중부세를 개편해 크고 작은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34개 부처, 68개 정보화사업의 전산장비 도입예산을 통합해 183억원을 절감하는 등 2012년까지 정부의 시스템 구축·운영비 30%(2천895억원)를 줄이고, 2010년까지 정부 웹사이트 수를 현재 501개에서 350여 개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연경기자 penfoot@kwangju.co.kr

영구임대주택 대기기간 29개월

광주·전남 대기자 8,340명...전국 평균보다 4개월 길어

광주·전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영세민들이 8천명을 넘어섰으며, 입주까지 평균 2년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전남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8천340명에 달한다.

이는 광주·전남의 전체 영구임대 규모(1만5천421가구)의 54.1% 수준으로, 불황과 고물가·고금리 기조 등의 여파로 입주 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광주는 7개 단지(1만420가구)의 영구임대 입주 대기자가 4천652명으로 파악됐다. 전남도 7개 단지(5천1가구)의 대기자가 3천687명에 달하면서 영구임대 입주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또 광주·전남은 영구임대 입주대기자들이 신청에서부터 입주까지 평균 29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25개월)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대구(9개월), 부산(17개월), 대전(21개월), 강원(22개월) 등에 비해 대기기간이 훨씬 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주·전남은 영구임대 대기자들이 전국 대기자(5만8천579가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14.4%에 달할 만큼 영구임대 물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영구임대 입주기간이 46개월로 가장 길었고, ▲인천(41개월) ▲충남(39개월) ▲경남(38개월)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과 제주를 입주기간이 각각 2개월, 8개월로 파악돼 입주기간이 타 시·도에 비해 짧았다. /최경호기자 choice@



명화 유리시계 '눈길' 광주신세계백화점은 7일 지하 1층 토브매장에 명화그림을 소재로 한 강화유리 시계와 세라믹터일 소재의 액자 등을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107대 1

전남농협 신규 채용 4,184명 지원서 접수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가 주관하는 신규직원 채용 경쟁률이 107대 1을 기록, 최근 취업난을 반영했다.

전남본부는 지난 2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39명 모집에 4천184명이 지원, 평균 1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광주지역에 농협의 경우 5명 모집에 1천662명이 몰려 경쟁률이 무려 332대 1에 달했다.

이번 채용은 전남본부 주관하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및 신체검사 등 절차를 거쳐 된다. 해당지역 연구자 중에서 선발하고 지역농협 또는 원예농협에서 근무하게 된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10일 전남농협 홈페이지(http://jeonnam.nonghyup.com)를 통해 발표한다.

정순열 전남본부 회장이자 팀장은 "이번 신규직원 채용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인재 발굴에 초점을 뒀으며, 연령과 성적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채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jtleee@

전남지역 한우 사육두수 6개월새 10% 이상 늘어

가격 하락 불구 증가

닭은 30% 이상 줄어

광우병 논쟁과 출하 기피 등의 여파로 최근 6개월간 전남의 한·육우 사육 규모가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닭 사육 규모는 AI(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최근 6개월새 4분의 3 수준으로 떨어졌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축통계조사'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전남의 한·육우는 40만9천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36만9천마리)에 비해 10.8%(4만마리)나 증가한 것으로, 산지 소값 약세에도 불구하고 소 사육 규모는 되레 크게 늘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의 소 사육 급증은 광우병 논쟁으로 인한 소비부진과 소값 하락에 따른 축산농가의 출하 기피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닭 사육 규모는 급감세를 나타냈다. 9월 현재 전남의 닭은 1천158만7천마리로, 지난 3월(1천499만3천마리)보다 22.7%(340만6천마리)나 줄었다. AI 등의 여파로 닭 사육 규모가 4분의 3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9월 현재 국내 한·육우는 247만마리로, 6개월 전보다 10.1%(22만8천마리)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닭 사육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현재 전국의 닭은 1억2천43만4천마리로, 6개월새 8.6%(1천134만6천마리) 줄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주공 지난해 이후 사들인 지방 미분양 주택 부산·경북 865가구 광주·전남 0

대한주택공사가 사들인 지방 미분양주택이 부산과 경북 등에 집중된 반면, 광주·전남에서는 단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주택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주공이 지난해 이후 사들인 지방의 미분양주택은 총 2천267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34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북(431가구) ▲경남(270가구) ▲충북(247가구) 등의 순이었다.

반면 광주·전남은 미분양 매입 물

량이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그동안 지역 건설업계가 경쟁업체 미분양 물량에 대한 '눈치 보기'에 급급, 미분양 매입 신청 자체를 회피했기 때문이라는 게 주공의 설명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 들어 광주·전남의 미분양 매입 신청이 쇄도하는 등 지역 건설업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현재까지 광주·전남의 건설업계가 매입을 신청한 미분양 물량은 1천189가구에 달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주택금융공사는 7일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오는 10일부터 0.3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 기간별로 현행 연 7.25(10년 만기)~7.50%(30년 만기)에서 각각 연 7.

60%~7.85%로 오른다.

인터넷 전용상품인 'e-모기지론'의 경우 보금자리론에 비해 만기별 금리가 0.1% 포인트 낮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 연 7.50%~7.7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도 0.35% 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연경기자 penfoot@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G Real Estate Consulting,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 different areas like apartment, villa, and house.

Large advertisement for Daewoo Electric's water purifiers, highlighting energy savings and health benefits. Includes a list of models and prices.